

KOCHAM

Economic Briefing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USA, Inc

2014년 4월 22일(화)

□ 미국 경제 동향

- 1) 경제의 봄, 성장 탄력 전망은 엇갈려
- 2) 3월중 기존주택매매건수, 전문가 예상치 소폭 상회
- 3) 2월중 연방주택금융청(FHFA) 주택지수 전월비 0.6% 상승

□ 해외 경제 동향

- 1) 유로존 위기국가, 올해 이자비용만 186조원
- 2) 중국, 예금보험제 도입 예정소식에 불안한 중소형 은행
- 3) 일본, 연기금 개혁 시동
- 4) 이라크 원유 생산량 후세인 시절 넘어서

□ 산업·시장 동향

- 1) 러, 크림반도에 카지노 사업 허가 추진
- 2) 유럽 자동차 업계, 새 공인 기준 시행임박에 초조
- 3)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 인수

□ 미국 경제 동향

1) 경제의 봄, 성장 탄력 전망은 엇갈려

- 지난 21일(현지시간) WSJ은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경제가 둔화세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다시 접어들었다고 보도
 - 전문가들은 3월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비 0.8% 상승한 100.9를 기록, 석달째 오름세를 보이며 이에 대해 성장 탄력이 봄을 지나 여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음
- 제조업 생산은 2월 1.4% 증가한데 이어 3월에도 0.5%증가, 제조업체들이 기업과 소비자들의 수요 확대를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
 - 전문가들은 특히 자동차 부문 회복세가 완연한 것으로 판단, 자동차 산업 전체로 향후 3~4년 동안 4~8% 성장을 예상
- 고용 부문도 지속적 개선세를 유지
 -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31만 2천명으로 전년의 35만7천 명에 비해 크게 감소, 2007년 10월 이후 6.5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
- 이러한 각종 경제활동 개선 움직임은 경제전망 상향으로 이어져, 1/4분기 1.3%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산되는 GDP는 2/4분기 연율기준으로 3.6%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
- 반면, 일부에서는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

- 경기 회복 · 침체를 공식 판정하는 기구인 전미경제조사국(NBER)은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시기를 2009년 6월로 판정, 지난 5년간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회복 추세는 근대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
- o 실업률 6.7%는 최근 경기 확장기 실업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이 기간 연평균 GDP 성장률은 1.8%로 이전 3개 경기 확장기 평균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
- o 시장은 이에 대해 오는 29~30일로 예정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

2) 3월중 기존주택매매건수, 전문가 예상치 소폭 상회

- o 지난 22일(현지시간) 전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계절 조정을 거친 미국의 3월중 기존주택매매 건수가 45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 이는 2012년 8월 480만 건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 예상치 456만 건보다는 3만 건 상회하는 결과
- o 3월중 기존주택매매 건수는 전월대비 0.2% 감소, 다만 전월비 0.4% 감소했던 2월에 비해 감소 추세는 둔화됨
 - 전문가들은 주택 재고 부족으로 인한 가파른 가격 상승 추세가 주택 판매 부진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
 - 또한 지난 겨울 미국을 강타한 이상 한파가 수요를 왜곡시킨 요인으로 분석
- o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시장이 향후 안정화되고 판매도 수개월내 높은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는 징조라고 평가

3) 2월중 연방주택금융청(FHFA) 주택지수 전월비 0.6% 상승

- 지난 22일(현지시간) 미연방주택금융청(FHFA)은 계절조정을 거친 2월중 미국 주택가격지수(HPI)가 전월대비 0.6% 상승했다고 발표
 - 이는 전문가 예상치 0.5% 상승을 0.1%p 상회하는 결과로 지난 해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
- FHFA는 2월 지수가 고점인 2007년 4월 대비 7.6% 낮은 수준이며, 2005년 6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
- 한편, 주택가격은 지난 2013년 11월 전월대비 0.1% 하락하기 전까지 2012년 2월부터 11개월 간 오름세를 나타낸바 있음

□ 해외 경제 동향

1) 유로존 위기국가, 올해 이자비용만 186조원

- 지난 20일(현지시간) FT는 유로존 주변부 5개 국가(포르투갈 · 이탈리아 · 아일랜드 · 그리스 · 스페인)의 올해 이자비용이 1300억 유로에 이른다고 보도
 - 이번 수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이달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나온 해당국가의 재정적자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고려, 정부가 매입한 국채에 대한 이자는 계산에서 제외해 산출된 것
- 전문가들은 이들 5개국이 연간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수의 10%를 내야 한다고 하며 다른 13개 유로존 국가의 경우 이자부담이 세수의 3.5%에 불과하다고 지적
 - 포르투갈의 경우 올해 내야할 이자만 73억 유로에 달해 이미 교육 예산을 초과, 다음 달 구제금융 졸업을 앞두고 IMF로 부터 마지막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국내 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 4.9%에서 내년까지 2.5%까지 낮출 계획
-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 비록 채무비율이 안정적인데다 일부에서 감소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미 장기간 높은 비율을 유지했던 만큼 추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설명

2) 중국, 예금보험제 도입 예정소식에 불안한 중소형 은행

- 지난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연내 예금보험제 도입이 확실시 되면서 일부 중국 소형 은행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 이는 곧 중국 정부가 은행 디폴트(채무 불이행) 허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

-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은행 당국이 예금 보험제를 마련하면 소형 은행들의 파산도 허용할 것이라며 다만 은행 예금 보장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은행 디폴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
- 시장관계자들은 중국이 예금보험제를 도입해 은행 파산을 허용하더라도 그 숫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은행 디폴트가 발생하면 이는 중국 은행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국이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디폴트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
- 한편, 중국 은행채 중 부실 채권 규모는 5921억 위안, 9개 분기 연속 증가하며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음

3) 일본, 연기금 개혁 시동

- 지난 21일(현지시간) WSJ은 일본 정부가 늘어나는 연금 수요에 맞춰 세계 최대 규모인 연기금 개혁에 착수 할 것이라고 보도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은퇴자 증가에 따른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운용 자산 규모 1조2600억 달러의 일본 국민연금인 GPIF(연금적립금 관리운용 독립 행정법인) 구조조정을 추진 중, 새 투자위원들은 올 후반으로 예정된 연기금 자산 배분 조정을 이끌 예정
- GPIF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채권과 주식에만 투자했으나 새 투자위원들이 포진함에 따라 자산운용 대상을 넓히고, 투자 전략도 공격적으로 변경됨
-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일본 연기금이 운용하는 자산 총액이 멕시코의 GDP를 능가하는 막대한 규모, 이는 일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행태 변화를 부를 것 이어서 세계 금융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발표

4) 이라크 원유 생산량 후세인 시절 넘어서

- 지난 21일(현지시간) WSJ은 올해 이라크의 원유 생산량이 석유 산업 절정기였던 사담 후세인 집권 당시의 생산량을 넘어섰다고 보도
 - 지난 2월중 이라크 유전의 원유생산량은 일일 평균 360만 배럴로 전년동기비 50% 증가한 수준
 - 또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운 1979년의 일일 350만 배럴을 넘어서는 규모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라크가 향후 20년 동안 전 세계 원유 생산량 증가에 단일 국가로는 최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
 - 이라크의 일평균 원유 생산량은 오는 2035년경 약 80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한편, 만약 실제 생산량이 이 같은 전망치에 약 300만 배럴 못 미칠 경우 글로벌 유가는 10%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하지만 IEA는 지난달 이라크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전월보다 34만 배럴가량 감소한 것을 지적 하며 과도한 긍정적 전망은 자제
 - 감소의 원인은 이라크 북부의 원유 수출용 연결관이 공격을 받은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

□ 산업·시장 동향

1) 러, 크림반도에 카지노 사업 허가 추진

- 지난 21일(현지시간) 비즈니스위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 반도에 카지노 업체들의 영업을 허가하는 ‘게임구역’ 지정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보도
 - 이는 크림 반도가 러시아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만 550억 루블의 예산적자가 예상됨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한 갑작스런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크림반도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이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
- 한편, 과거 푸틴 대통령은 도박을 중독성이 강하고 조직범죄의 온상이라며 반대해 지난 2006년 카지노를 폐쇄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한바 있음

2) 유럽 자동차 업계, 새 공인 기준 시행임박에 초조

- 지난 21일(현지시간) FT는 유럽 자동차제조사들이 EU를 상대로 새 자동차 심사규정인 ‘국제통합소형차시험방법(WLTP)’ 시행을 2021년 이후로 늦추기 위해 적극 로비중이라고 보도
 - WLTP는 유엔산하기구 자동차법규표준화기구(WP29)에서 연구 중인 자동차 공인 표준으로 소형차의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재는 통합 기준
 - 현재 EU와 일본, 인도 등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도 2010년 관련 연구에 참여한 바 있음

- EU는 오는 2017년부터 WLTP를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온실가스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음
 - EU는 올 2월에도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까지 1km당 95g으로 줄이지 않으면 제조사에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 한편, 자동차 업계에서는 EU방침에 대해 무리라는 입장이 지배적
 - BMW 라이트호퍼 회장은 지난달 연설에서 WLTP가 시행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바뀔 것이며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
- 전문가들은 새 심사기준이 적용될 경우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산화탄소 제한을 통과하기 위해 추가로 써야할 돈은 도합 1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

3)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 인수

- 지난 21일(현지시간) 정보기술 전문매체 매셔블은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는 거래가 25일 마무리 될 것이라고 보도
- 작년 9월 3일 처음 발표했던 54억 유로(약 8조원) 규모의 이번 인수합병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된 끝에 약 7개월여 만에 종료될 예정
-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 휴대전화 브랜드명을 마이크로소프트 모바일로 교체할 것으로 알려짐.끝.